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3년 2월 조사 –

국내경기는 답보상태, 충분한 가격 전가 진행되지 않아

～ 생활필수품의 가격상승 및 인력 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간 격차 확대 ～

(조사대상 2만 7,607 사, 유효회답 1만 203 사, 회답율 37.0%, 조사개시 2002년 5월)

## 조사결과의 포인트

1. 2023년 2월의 경기 DI는 지난달부터 보합 상태인 42.1을 기록하였다. 국내 경기는 가격 전가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한편 인력 부족 고조가 계속되는 등 등 답보상태로 추이하였다. 향후는 부진 요인을 많이 떠안아 약세를 보이나 대체로 보합 경향으로 추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사업 가격의 고공행진 및 부채 입수의 어려움 등이 『제조』 및 『건설』을 중심으로 악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가격 전가 문제나 인재 확보 등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소매』 등 5개 업계에서 어려운 와중에도 개선이 나타났다.
  3. 10개 지역 중 5개 지역, 20개 부현(府県)이 악화, 5개 지역, 22개 도현(道県)이 개선되었다. 각 지역의 체감경기가 엇갈리면서 3년 1개월 만에 10개 지역의 격차가 7.6포인트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매출 DI가 36개 도부현(道府県)에서 50을 밑돌아 각지에서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악화된 반면 「중소기업」과 「소규모기업」은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2023년 3월 3일  
주식회사테이코쿠데이터뱅크 정보통괄부  
<https://www.tdb.co.jp>

< 2023년 2월의 동향 : 답보 >

2023년 2월의 경기 DI는 지난달부터 보합 상태인 42.1을 기록하였다.

2월의 국내경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의 급속한 감소에 의한 인파 증가가 상승 요인이 된 한편, 지속적인 비용부담 증가 등의 영향을 받으며 추이하였다. 원재료 가격·전기요금 급등 및 생활필수품의 가격상승, 불충분한 가격 전가 상황은 경기의 마이너스 요소였다. 한편 IT투자수요나 부동산, 어폐럴 도매 등은 상향하였다. 관광 산업은 높은 물가나 전국 여행 지원 할인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숙박 서비스의 악화가 계속되었으나 인바운드 부활 및 이벤트 개최 등은 호재로 나타났다. 국내경기는 가격 전가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한편 인력 부족 고조가 계속되는 등 등 답보상태로 추이하였다.

### < 향후의 전망 : 대체로 보합 경향으로 추이 >

향후 1년간 정도의 국내경기는 경제 사회 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경기를 지탱하면서 미국·중국·유럽 등의 해외 경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 금리동향 등의 영향을 계속 받으며 추이 할 것이다. 국내 여행 지원 효과나 인바운드 소비 확대, 임금인상 움직임 등으로 대면 형태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DX 수요 확대, 환율 안정 및 성인화(省人化)·자동화에 대한 설비 투자 등도 호재가 될 것이다. 한편 생활비 상승이나 심각해지는 일손 부족, 코로나 관련 융자 상환 등은 마이너스 요인이다. 또한 실질임금 저하가 장기화되면 소비의 저해요인이 된다. 더욱이 일본은행에 의한 금융정책의 행방이 주목된다. 향후는 부진 요인을 많이 떠안아 약세를 보이나 대체로 보합 경향으로 추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